



광고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매체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정상국 | 한국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
LG 부사장

1989년 9월에 창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저널로서 권위와 전통을 쌓아온 'KAA저널'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KAA저널'은 광고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업계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에 큰 힘을 보태왔습니다.

또한 한국광고주협회 2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해 광고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실질적인 매체로 성장했으며, 이는 역대 협회장을 비롯하여 정병철 회장 이하 협회 임직원 여러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빚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고시장 최대 이슈의 중심축은 스마트 미디어, SNS 등과 함께 12월 개국을 앞둔 종편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기업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미디어 전략을 통해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고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상호작용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업계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KAA저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AA저널'이 장기적 안목과 폭넓은 사고로 기업 광고담당자들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로서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매체에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모든 광고계 종사자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 받는 매체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KAA저널' 2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광고산업의 출발점인 광고주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순동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KAA저널'의 지령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AA저널'은 그동안 광고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광고관련 제도 개선 및 광고·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한편 광고의 자유 신장과 광고의 긍정적 인식 확대 등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광고주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고주를 둘러싼 광고회사, 광고산업, 매체 등과의 관계에서 거래의 선진화,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광고주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광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고주의 목소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면밀하게 대변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KAA저널'이 지령 200호를 발간하기까지 이루어왔던 것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령 200호가 나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임직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KAA저널'이 앞으로 국내 광고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광고전문지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광고주 권익과 광고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바랍니다



김상훈 | 한국광고학회 회장
인하대 교수

'KAA저널' 통권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AA저널'은 지난 23년간 광고주의 권익 신장과 한국의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광고산업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 본 저널이 상당한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저널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고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광고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 제도의 변화, 종편의 개국과 더불어 매체의 국제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스마트광고의 등장은 매체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KAA저널'이 광고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제도에 있어서도 보다 선진화된 제도를 갖기 위해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본 저널이 이러한 산적한 광고계의 이슈들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 해결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KAA저널'의 200호 생일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